

자료제공 : 2026. 8. 5.(수)

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실 주택정책과

주택정책과장

강준령

02-2133-7010

주택정책팀장

강윤희

02-2133-7012

관련 누리집

-

사진 없음 ☒ 사진 있음 ☐
※ 추후제공

쪽수: 3쪽

"전월세 오를까 걱정" 시민에게 직접 듣는다...서울시, '부동산 정상화' 공개토론 생중계

-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시민 우려·문의 확산... 6일(목) 서울시청서 시민참여형 토론회
- 비거주 1주택자·무주택 청년·민간임대사업자, 전문가 등 50명, 4대 주제로 60분간 직접 논의
-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90분간 생중계... 실시간 댓글·화상 연결로 온라인 참여
- 오세훈 시장, "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세금 아닌 재개발·재건축 등 충분한 주택공급"

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상승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, 실거주 과세 부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.

☐ 서울시는 6일(목)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'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'를 개최하고, 전 과정을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.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,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,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.

<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·민간임대사업자, 전문가 등 50명, 세 부담과 시장 영향 논의>

-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(월) ‘2026년 세제개편안’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. 서울시는 제도와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.
-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크리에이터, 전문가들이 ▲세제개편, ▲부동산거래, ▲전월세시장, ▲주택공급 등 4대 주제를 놓고 60분간 자유롭게 논의한다.

<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90분간 생중계… 실시간 댓글·화상 연결로 온라인참여>

-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된다.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.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토론회 종료 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.
- 김병민 G3 공동위원장(前 서울시 정무부시장)이 사회를 맡는다.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재개발·재건축 등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”며 “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”고 말했다. 이

어 “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”이라며 “재개발·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”고 밝혔다.